

2023년 1차 이주민분과 회의록

일 시	2023년 1월 19일(목) 10:30 ~ 12:00					
장 소	수원시흥재복지타운 4층 회의실3 (405호)					
참석자 15/18 공(6/6) 민(9/12)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오미자(공공분과장)	○	김진호	×	윤다영	○
	이은희(민간분과장)	○	노순자	○	이미영(공공)	○
	고정미(총무)	×	손영희	○	정다솔(공공)	○
	남기원(서기)	○	송경순	○	정재은(공공)	○
	김민정	○	오장미	×	정일용(자문)	○
김원숙	○	엄다영(배석, 공공)	○	임지원(배석, 공공)	○	
회의주제 및 안건	<p>1. 보고 및 공유사항</p> <p>1) 분과장 및 위원 인사</p> <p>2) 2023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p> <p>2. 안건 논의</p> <p>1)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모니터링</p> <p>2) 2023년 이주민분과 활동계획 논의</p> <p>3. 기타</p> <p>1) 2023년 이주민분과 정기회의 일정 논의</p> <p>2) 2월 회의 일정 논의</p> <p>3) 기관 행사 및 업무 공유</p>					

회의 결과

- 1. 보고 및 공유사항**
- 1) 분과장 및 위원 인사
- 민간 분과장 및 위원 상호 인사
- 2) 2023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 2023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 공유
 - 사업계획 관련 의견 없음
- 2. 안건 논의**
- 1)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모니터링
- (1) 세부계획 모니터링 내용
- 10-1.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로 사업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고무적임. 단,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해산비 등 지원확대를 위해 외국인주민 거주 밀집지역 소재해 있는 산부인과 등에 홍보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내국인 커뮤니티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

인 주민이 본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0-2. 다(多) 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된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참여자 만족도 등 보다 심도 있는 내용 확인과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임. 이에, 공모사업 설명회 및 결과보고회 등에 모니터링 담당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함.

10-3. 이주민 건강·의료지원 서비스 홍보 및 인식 확대

- 현재 외국인 대상 보건서비스가 감소한 상황이지만 보건서비스의 경우 기본적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제공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함. 책자 서비스 이외 온라인 페이지를 링크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국 초기부터 보건서비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0-5.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 외국인주민 대상 행사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한국문화에 대한 욕구도 높을 것임. 공연팀을 섭외할 때 한국 공연팀이나 가수를 섭외해도 좋을 것임.
- 세계인의날 행사의 경우 단순히 하루 진행되는 행사의 의미를 넘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융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잘 기획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22년도 우수사업으로 추천함.

#붙임1. 2022년 시행결과 모니터링 의견

- 우수사업 논의 결과

사업번호	사업명	추천사유	비고
10-5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세계인의 날 행사는 단순 행사성 사업을 넘어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되는 유일한 행사임.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 행사 병행을 통해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확대됨.	

2) 2023년 이주민분과 활동계획 논의

* 논의내용

-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은 가장 근본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관련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정책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과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정치권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
- 2022년 우수분과 선정된 부분은 위원간 관계강화 및 지지를 위한 활동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주민분과의 경우 분과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원들의 소진이

있는 것도 사실임. 이에 대한 지지와 보상의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음.

- 2023년 연간 활동 :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하는 정책 차담회 2)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우수사례 벤차미킹 3) 위원 관계 강화 프로그램 추진

- 공동사업 계획초안 작성 : 이주미 간사 (제출 : 2/3 까지)

3. 기타

1) 2023년 이주민분과 정기회의 일정 논의

- 매월 세 번째 목요일 14:00

2) 차기회의 일정

- 일시 : 2022. 2. 23.(목) 14:00
- 장소 : 수원시흥재복지타운 4층 세미나실 (401호)

3) 기관 행사 및 업무 공유

- 특이사항 없음

회의 사진



붙임1. 2022년 시행계획 시행결과 모니터링 의견

연도	사업번호	중점추진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2022년도 시행계획 총괄평가	
								실무부와 모니터링 의견	사업부서 의견(후속조치)
추진전략 X. 이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지역 공동체				오미자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장 이은희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과장			-계획대로 이행됨.		
73	10-1	중점	공약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지원팀	엄다영	<p>-코로나19로 인한 수요증가로 사업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고무적임. 단,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해산비 등 지원확대를 위해 외국인주민 거주 밀집지역 소재해 있는 산부인과 등에 홍보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내국인 커뮤니티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 주민이 본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p> <p>-전체 사업 예산을 수행기관별로 배당하여 추진하는 것인 질의함</p> <p>-대부분의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도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 져야 정보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주민 아동 가정에 해당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임.</p>	-기관별 금액을 배당하지 않고 신청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74	10-2	중점	지속보완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	류승현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된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참여자 만족도 등 보다 심도 있는 내용 확인과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임. 이에, 공모사업 설명회 및 결과보고회 등에 모니터링 담당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함.	
75	10-3	중점	신규	이주민 건강·의료지원 서비스 홍보 및 인식 확대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	정다솔	<p>-현재 외국인 대상 보건서비스가 감소한 상황이지만 보건서비스의 경우 기본적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제공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함. 책자 서비스 이외 온라인 페이지를 링크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p> <p>-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국 초기부터 보건서비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p>	
76	10-4	-	신규	이주민 가족 자녀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초기상담 지원 사업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	임지원	-계획대비 절적하게 추진됨	
77	10-5	-	지속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지원팀	정재은	<p>-외국인주민 대상 행사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한국문화에 대한 욕구도 높을 것임. 공연팀을 섭외할 때 한국 공연팀이나 가수를 섭외해도 좋을 것임.</p> <p>-세계인의날 행사의 경우 단순히 하루 진행되는 행사의 의미를 넘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융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잘 기획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22년도 우수사업으로 추천함.</p>	